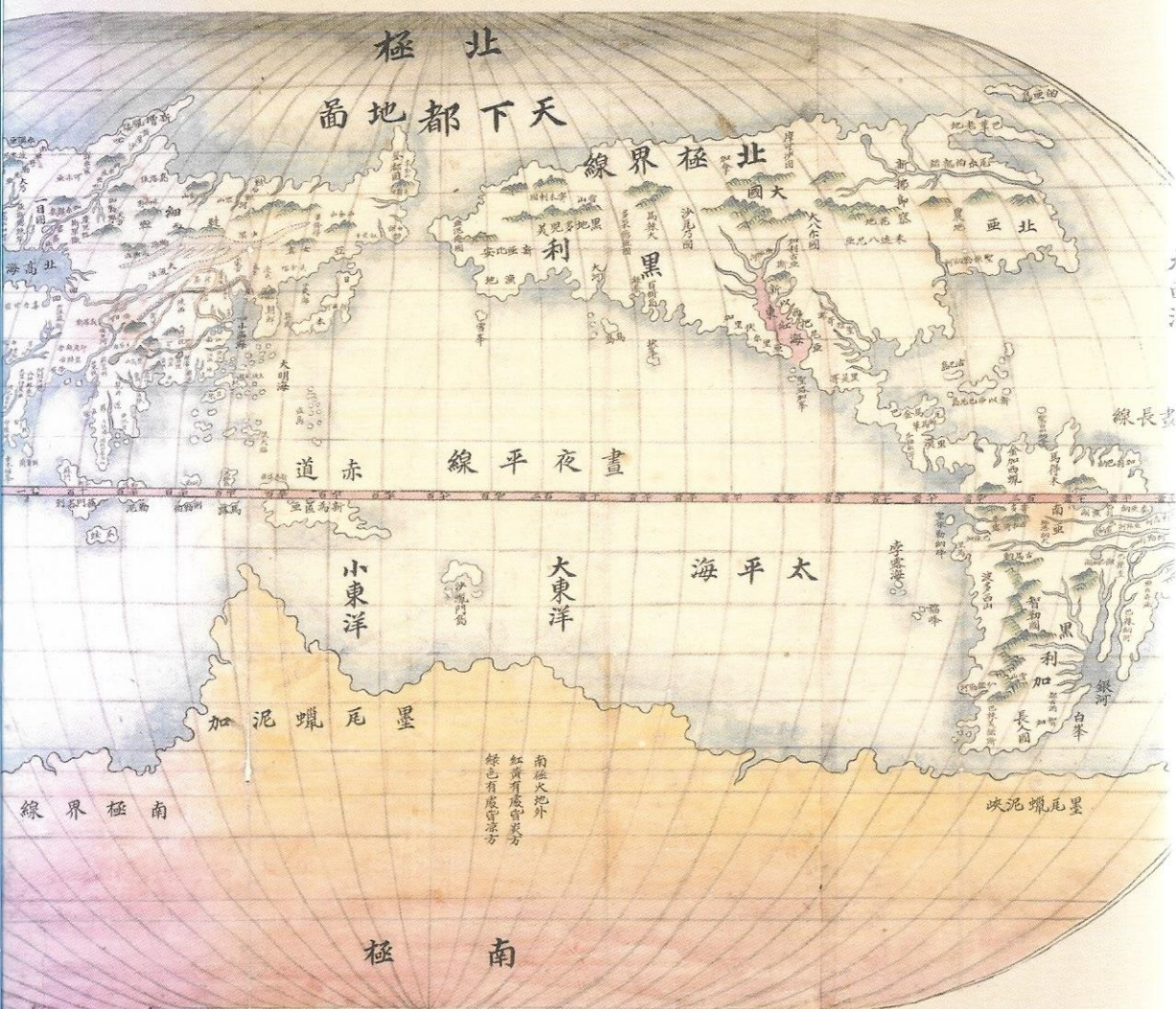


세계 속의 한국사

이태진 교수 정년기념논총 간행위원회



이 책의 필자들은

같은 시기에 공부를 시작한 것도 아니고,
역사를 보는 눈이 똑같은 것도 아닙니다.
필자들 가운데 윗세대에 속하는 사람들은
한국사회가 군사독재의 암울한 지배 아래 있던 시기에,
현장으로 달려가는 동료들을 바라보며 한국사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또 다른 애정을 품고 학문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학자들은 철학적 민주주의를 획득하고
경제발전의 결과로 사회가 풍요로워진 뒤에,
이전과는 다른 문제의식을 안고 학문의 세계로 뛰어들었습니다.
사회 분위기의 변화에 따라 역사적 과제가 달리 설정되었기 때문에
관심 분야도 달라지고 문제의식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를 두고 구심력이 약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민족과 역사에 대한 애정과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기본적으로 공유해 왔고,
지금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이 이러한 문제의식을 잘 담아내길 기대한 것입니다.

필자들의 두 가지 소박한 기대

하나는 전문적인 논문보다는 쉽게 읽힐 수 있도록 글은 쓰지만,
20세기 후반기를 살아온,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학자들의 높고도 치열한 문제의식이 녹아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특히 같은 시대에 살면서
같은 학문을 하며 맺은 인연을 확인하고,
그것의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하는 기대입니다.
역사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데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태진 선생님과 이 책의 필자들이 교정에서 만나 스승과 제자로
아름다운 인연을 맺은 것은 개인의 생애에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었을 뿐 아니라
한국사 연구에서도 일정한 의미를 갖는 시작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www.thaehaksa.com

값 25,000원



9 788959 663095

ISBN 978-89-5966-309-5

ISBN 978-89-5966-304-0(세트)